

“전법 없는 불교는 죽은 불교…전법이 우리 임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회향사 어떤 내용 담겼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60명 비구에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 행복을 위해 떠나라’며 전법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부여한 의무는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후 보드가야로 320km를 다시 맨발로 걸어가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전법하라’입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를 성불보다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하면 어떨까요.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하세요’를 다음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부처님 법 통한 포교 원력 세워
한국불교 과제 ‘전법 위기’ 극복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 떠나야”
새로운 포교장 열겠단 의지 담겨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인사 제안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회향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중들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전법’이었다. 43일, 1167km 인도순례의 목적이 바로 전법 원력을 추진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전법’은 자승 스님이 43일간 인도를 순례하기 훨씬 전부터 끊임없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2019년 11월 11일, 산중한처가 아닌 위례신도시 한가운데서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가 시작됐을 때, 중생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정진이 그 새로운 전법의 첫 불씨였다. 이후 2020년 자비순례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불교 중흥 동력을 이어간 자승 스님은 그동안의 한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순례에서 결집시켰다.

자승 스님은 43일간의 인도 순례 기간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전법의 중요성을 설법했다.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봉행된 인도순례 입재법회에서 ‘21세기 신(新) 전도선언’을 선포한 스님은 “한국불교를 살릴 길은 전법을 통한 포교”라고 설파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뤄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대의 전도선언 선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계기로 전법에 진력하는 원력을 세우자는 당부였다.

2월 22일 보드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자승 스님은 장군죽비 같이 준엄하게 설법을 이어가며 부처님 법을 통한 포교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늘 포교만이 한국불교의 살길”이라며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불교 중흥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3월 14일,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동화사 신도들을 위한 법문에서도 전법의 의미를 다시 짚었다. 이날 스님은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고 당부했다.

전법에 대한 의지는 이날 회향법회 회향사에서도 꾸준히 강조됐다. 자승 스님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임무는 “전법하라”라면서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라고 말했다.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것이 전법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을 향해 “성불은 다음생에 미루고, 금생에는 전법하자”고도 했다. 앞으로는 “성불하세요”대신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로 인사하자는 자승 스님의 말에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자승 스님의 회향사에 담긴 ‘전법’에는 불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성불은 내생에 미루고 금생엔 부처님 법 전하자”는 외침은 불교중흥을 이끄는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회향사 후에는 전법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한국불교가 되자는 의지로 앞서 발표된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맞춰 108배를 하며 회향법회가 마무리됐다. 참회가 아니라 원력을 담아 전법과 중흥의 길에 오롯이 서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사부대중 함께 정진하며 전법 · 포교의 삶 살겠다”

부처님,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존엄한 생명으로 받아주셨으니, 오늘도 신심과 원력을 세워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절을 올립니다.

1.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2.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3.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4. 모든 존재는 결국 소멸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겠습니다.
5. 모든 존재는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6. 무상의 이치를 알아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7. 무아의 이치를 알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8.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고통스러워짐을 알아가겠습니다.
9.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우치겠습니다.
10. 욕심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다스리겠습니다.
11. 깨달음의 바른 길을 찾아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12. 삶을 향한 이기심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3. 나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 안에 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14. 상대를 가리지 않으며 조건 없이 베풀고 돕겠습니다.
15.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항상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16. 꿋꿋이 참고 견디며 고난을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17.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상에서 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18. 인내와 근면을 실천하는 힘으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19. 진리를 향해 가행정진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20.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21. 마음의 어둠을 떨쳐내고 지혜의 광명을 간직하겠습니다.
22. 바른 관점으로 치우침 없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23. 바른 생각으로 정당한 도리에 맞게 사유하겠습니다.
24. 바른 언어로 모두에게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겠습니다.
25. 바른 행동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26. 바른 생활로 나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27. 바른 노력으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8. 바른 의식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29. 바른 수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겠습니다.
30.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의 완전한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31. 정법의 아름다움을 온 누리에 환히 밝히겠습니다.
32. 말과 행동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상생하겠습니다.
33. 의지와 계율로 화합하여 함께 일하고 수행하겠습니다.
34. 생각과 이익으로 화합하여 함께 편안하게 나누겠습니다.
35. 모든 생명들이 서로를 존중하여 화합하겠습니다.
36. 살아있는 것들을 다치게 하거나 해치지 않겠습니다.
37. 잘못된 관계를 통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38. 거짓말로 속이지 않아 진실한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39. 모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40. 마음을 다스려 탐욕스럽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41.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42. 정직하고 진실한 언행으로 모든 생명을 살피겠습니다.
43. 교만과 분노가 아닌 존중과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44. 재물을 기꺼이 나눠주고 진리를 기쁘게 전하겠습니다.
45. 환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46.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겠습니다.
47.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처신하겠습니다.
48.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존재를 받들어 가겠습니다.
49. 사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0.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51.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52. 누구나 갖고 싶은 것에는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53. 사부대중이 함께 참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54. 부처님을 따라 전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55. 부처님의 자유와 평화를 모두가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56. 국민과 사회에 바르고 온화하게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7.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8.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9.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60. 계층과 신분을 분별하지 않고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1.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2.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3.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64.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65. 모든 일에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66. 모두에게 차별 없이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67.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8.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지 않겠습니다.
69. 동물과 미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70.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71.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72.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73.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74.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5. 더욱 화합하고 성숙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76. 불자들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77. 불자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8. 자녀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79. 청소년들이 훌륭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0. 청년 대학생들이 활기차고 자유롭도록 돕겠습니다.
81. 중장년층이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2. 노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3. 불자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84. 모든 사람에게 언행이 일치된 불자가 되겠습니다.
85.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수지하고 독송하며 기억하겠습니다.
86. 굳건한 정진과 보시의 공덕을 널리 회향하겠습니다.
87.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88.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89. 종교와 문화, 정체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90. 가난을 멸시하거나 부자를 질시하지 않겠습니다.
91. 겉모습과 권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92. 잇속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해 판단하겠습니다.
93.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94. 모두를 공평하게 보듬어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95. 세상 속 불교를 실천하여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96. 각자의 수행이 한국불교의 자긍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97.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겠습니다.
98.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99. 유익한 신행문화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100. 회향의 공덕을 나누어 움직이는 불교를 이루겠습니다.
101.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102. 불제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현시대에 실천하겠습니다.
103. 사부대중은 국민의 삶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104. 사부대중은 인간의 삶에서 생로병사를 함께하겠습니다.
105. 한결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6. 사부대중의 정진을 모아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7. 불법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며 보답하겠습니다.
108. 부처님 법 전하는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